

저조한 민주 선거인단, 막판 변수될까

12만명 신성... 각 후보 총력전 결과에 촉박히 지역사회 투표 마감... 김한길 전북 경선도 1위

■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득표 집계

순위	후보자	전북	누계
1	김한길	342	2263
2	이해찬	216	2053
3	강기정	227	1333
4	추미애	185	1292
5	이상호	78	1039
6	조정식	113	972
7	이종걸	80	767
8	문용식	63	367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지역 대의원 투표에서 김한길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3위에 머무른 이해찬 후보와의 격차를 벌였다. 김한길 후보는 5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이 후보의 대세론은 점차 동력을 잃어가고 있어 지도부 경선의 전체적인 흐름은 수도권 대의원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주 웨딩 캐슬에서 열린 경선에서 총 유효표 652표(전체 대의원 733명) 가운데 342표를 얻으며 5연승을 내달렸다. 강기정 후보는 전북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세균 상임고문의 측근 지원에 힘입어 2위(227표)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이해찬 후보는 216표를 얻는데 그쳐 3위에 머물렀고 정세균이 있는 추미애 후보는 185표를 확보, 4위를 기록했다. 조정식 후보는 113표로 5위를, 이종걸 후보와 이상호 후보가 각각 80표와 78표를 얻었으며 문용식 후보는 63표로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지금까지의 누적 투표 집계 결과, 김한길 후보가 2263표로 1위, 이해찬 후보가 2053표로 2위, 강기정 후보가 1333표로 3위, 추미애 후보가 1292표로 4위를 기록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전부를 마지막으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 순회 투표 일정을 마감했으며, 오는 9

일 전국 대의원 대회 겸 대의원 투표에서 마지막 승자를 가리게 된다. 서울·인천·경기의 대의원 규모는 전체의 48.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선의 흐름을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수도권 대의원 투표는 1일부터 3일까지 하루 간격으로 치러진다. 대의원 투표는 6·9 전당대회에서 발표될 최종 결과에 30% 반영되며, 나머지 70%는 당원·시민 선거인단의 모바일투표(6월5~6일)와 현장투표(6월8일)로 이뤄진다. 한편, 지난 30일 밤 마감된 민주통합당 6·9 전당대회 모바일 국민선거인단 신청자는 총 12만3286명으로 집계됐다.

선거인단 규모가 10만명선을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각 후보 진영에서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에 총력을 펼쳤다는 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도 관심사다. 우선 당내 최대 세력인 친노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모바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우세를 보이며 역전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김한길 후보가 수도권에서도 승리를 거둔다면 이같은 흐름은 모바일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4위는 수도권이 지역구인 추미애, 이상호 후보가 유력한 가운데 구당권파인 정세균 의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강기정 후보의 선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의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해 지난 31일 전북 전주 웨딩캐슬에서 열린 지역 순회투표에서 김한길 후보가 1위를 하고 나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섭 “하루만 의원, 120만원 연금 문제있다” 김동철 “軍공향 이전·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지난 31일 국회의원 연금 제도와 관련 “하루만 의원을 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분방비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전직 의원 가운데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못하는 분도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며칠만 의원을 해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



이라며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소신껏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사권 남용 방지 장치는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19대 임기가 시작된 만큼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총선 야권연대 당사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종걸기자 galee@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산구갑)은 지난 31일 자신의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광주 군 공향 이전의 근거인 ‘군 공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군 공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향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6개월 내에 이전 타당성 여부를 심의·결정하며 이전이 타당한 행정 2년 내에 군 공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18대 국회 당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까지 통과했지만, 청와대·여당의 국방개혁법 연계처리 방침에 따라 입법 연기됐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18대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었다. 국방부 및 국회 국방위원들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 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기자 galee@kwangju.co.kr

25일 ‘CS Korea재단’ 창립대회 등 안철수 지지 모임 활발 광주·전남서도 ‘安風’ 부나

잠재적인 대권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모임들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창립을 준비하는 등 안 원장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안 원장의 지지모임 중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 ‘CS Korea재단’은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백 빌딩에 위치한 광주지부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모임에는 정재훈(경남대 석좌교수) 재단 공동대표를 비롯한 문정현 변호사와 문남열 광주지역 공동준비위원장 등 지부 관계자와 정당인·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CS

Korea재단’의 향후 발기인대회 및 창립대회 준비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준비위는 또 기존 정치권에 때 묻지 않고, 깨끗하고 참신한 각계의 지역 명망가들을 접촉하며 세 불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CS Korea재단’ 측은 안 원장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안 원장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본격적인 대권행보가 시작될 경우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전망이다. ‘CS Korea재단’ 측은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고 인권과 복지 등을 중시하며, 동서화합과 남북화해의 시대를 열어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현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출범했다”고

말했다. ‘CS Korea재단’은 오는 25일 광주지역 발기인대회와 창립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안철수처럼’ ‘안철수 산악회’ 등 자발적인 안 원장의 지지모임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원장은 지난 30일 부산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대선출마와 관련, “정치인들은 자신의 뜻을 대중에게 밝히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행동하지만 제 경우에는 사회변화에 대한 열망이 저를 통해 분출된 것”이라며 “정치를 하게 된다면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 있다”고 기존의 신중함 입장을 고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지명직 최고 이정현 내정

새누리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남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로 나머지 한 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1일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에 이정현 전 의원을 임명하기로 지도부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일부에서 이 전 의원이 친박(친 박근혜) 색채가 너무 짙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1~2일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박근혜 의원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불모지인 호남에서 선전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을

배려해왔다는 관계가 감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 준 강원도 민심을 배려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반영하듯, 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 “이번 주말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석기·김재연 제명 공조 추진

이한구·박지원 “자진사퇴 거부면 자격심사” 동참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자격심사 절차 진행에 동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경하드립니다”며 “그간 이석기·김재연 제명처

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박지원 원내대표와 공동명의로 다음달 5일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최소한 원포인트 국회개원이 가능하다는 사인이고 준비국회의 모습”이라며 “상임위부분 협상이 계속돼 하루빨리 100%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원내대표 뜻은)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본다”며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법 따르면 특정의원에 대해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종걸기자 galee@kwangju.co.kr

중의 침구학 중국자격증 & 학위취득을 위한 세미나

공개강좌 & 수강생모집

- 중국 중의약대학과 18년간 학술교류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 중의약대학 침구과(3년), 중의과(5년) 학점인정
- 해외에서 인정되는 중국 자격증 취득가능
- 중국, 미국 한의대 석박사과정 입학 및 편입가능
- 의료개방 대비, 자기 건강관리, 해외봉사를 위한 연수세미나
- 해외이민, 한방병원 설립 및 해외진출, 취업지원

“알기쉬운 침구학” 세미나과정

-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 주요과목: 침구학개론(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전문과정(1년)
- 주요과목: 중국침구학연수,중의학,경혈학,진단학,방약학,해부학 등

공개강좌 & 신청 6월 1일(금) 오후 2시

위치: 쌍촌역 1번출구에서 화정역방향으로 50m직진 3층

※ 본 문헌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서울본원/대전본원/대구본원/부산본원/울산본원/광주본원/제주본원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정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경매투자

- ▶ 경매비법 배우면서 수익 내실분
- ▶ 입찰반 / 회비 550만원(4명 한)
- ▶ 이론반 / 회비 55만원(24명 한)
- ▶ 특수물건만 취급

수료증 단독 / 공동투자가능

투자자 모집

- ▶ 경매 물건중 특수물건만 투자
- ▶ 근저당 1순위 설정 / 가등기
- ▶ 투자금 1억원 이상

년 20~50% 수익률!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FAX 062 574 4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전통 있는 미래신용정보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상당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등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54개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MBN 홍보 매일경제

미래신용정보(주)
친절상담 010-8617-7899